



연일 동장군이 기습을 부리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물론만 아니라 마음까지 훈훈하게 해주는 아웃도어제품이 어떨까. 다운재킷, 부츠, 방한모, 장갑 등 아웃도어 방한제품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밀레의 모델 탑(오른쪽)과 박신혜.

사진제공 | 밀레

부모님 성탄선물? 가벼운 구스다운!

선물로 좋은 아웃도어 제품

남자친구엔 ‘워커형 부츠’ 특별한 선물
커플용 다운재킷·장갑·방한모도 인기
사랑하는 아이들에겐 ‘워머 세트’ 추천

곧 크리스마스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연인, 아이들,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다. 잘 고른 선물 하나로 더욱 훈훈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잃었던 점수를 만회할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아웃도어 제품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올 크리스마스는 느닷없는 한파로 아웃도어 방한제품이 선물 아이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 줄 선물용 아웃도어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춥다, 추워” 강추위를 막아 줄 다운재킷

스타일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아웃도어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은 다운재킷, 부츠, 모자, 장갑 등 다양하다. 선물받을 사람의 필요와 직업사정에 맞춰 고르면 된다.

‘콘트라 다운 롱하프 재킷(33만4000원)’은 레드페이스의 대표적인 겨울 신상품. 일반적인 다운하프 재킷보다 기장이 더 길어 하체 부분까지 따뜻하게 해준다. 머털의 ‘폴라랜드 히트업 구스다운(59만원)’은 마치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재킷이다. 다운 에어백을 장착해 따뜻한 공기를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의 ‘예티 플리스 재킷(16만9000원)’은 보털보털한 촉감의 플리스와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를 적용해 보온성과 활동성을 동시에 잡았다. 마모트의 ‘첼린저 파카(69만9000원)’는 윈드스토프 윈단을 사용해 방풍효과를 높인



노스페이스 ‘GTX 프라우드 글러브’ ▲

헤비다운재킷. 배플시스템을 적용해 털이 묻치지 않고 고루 퍼져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센터폴의 ‘마테호른 프리미엄 다운재킷(69만9000원)’은 남녀 커플룩으로 출시돼 연인 선물용으로 좋다. 짧고 캐주얼한 디자인에 프리미엄 디테일을 더한 것이 특징. 배우 수현이 공항패션으로 선보여 화제가 된 ‘마테호른S 프리미엄 다운재킷(89만9000원)’은 프리미엄 한정판 제품이다.

무거운 옷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님께는 칸투칸의 경량 구스다운재킷이 어떨까. ‘J412 액티브 구스다운 재킷’은 가벼움에 중점을 두고 만든 칸투칸의 기획제품이다. 타 제품에 비해 8만9800원이라는 가격도 ‘가볍게’ 느껴진다.

● 남성용 워커 부츠·귀 덮개 달린 모자도 인기

부츠는 여자만 신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릴 때가 됐다. 블랙야크는 발이 시린 남성들을 위해 워커 스타일의 부츠를 내놨다. ‘스터너 GTX(24만9000원)’는 캐주얼한 아웃도어형 방한 부츠다. 보온은 물론 충격과 땀 흡수, 발 냄새 억제기능이 우수하다.

K2의 ‘윈터(16만9000원)’는 얼어붙은 길 위에서 엉덩방아를 찢지 않도록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아이스 프루프 기능과 엠엑스 그립 기능을 적용했다.

살로몬의 여성용 방한부츠인 ‘히메하이W(27만8000원)’과 ‘히메미드W(23만8000원)’도 아이스그립 기술로 접지력을 강화한 제품이다. ‘히메하이W’는 정장이나 원피스, ‘히메미드W’는 캐주얼한 복장과 잘 어울린다.

부츠와 함께 레그워머를 매치하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잘 막을 수 있다. 컬럼비아는 노르딕 패턴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레그워머(4만3000원)’와 ‘넥게이터(3만5000원)’를 내놨다.

몸의 열기의 대부분은 머리로 빠져 나간다. 제대로 된 보온을 위해서는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스페이스 ‘GTX 히트 익스페디션 캡(8만5000원)’은 이어플랩 디자인을 적용해 추위에 약한 귀와 뺨을 보호해준다. 눈과 비가 잦은 겨울날씨를 고려해 방수, 투습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소재를 활용했다.

노스페이스 ‘GTX 프라우드 글러브(15만원)’는 손바닥 전체와 손가락 바깥쪽에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한 장갑제품이다. 손목 윗 부분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방한기능을 강화했다.

‘트레킹 믹스 니트캡(5만5000원)’도 귀 덮개가 달려 있는 노스케이프의 모자다. 땀이 자주 나는 뒤통이 부분에 쿨맥스 소재를 적용해 등산 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면 노스페이스의 ‘컬러블라 워머세트(5만8000원)’가 어떨까. 넥게이터, 장갑, 귀마개를 패키지로 구성한 아동용 방한용품 세트다.

아이들의 ‘범블비 구스다운 재킷(19만9000원)’은 성인용 다운재킷 ‘올라하프’의 미니미 재킷이다. 성인용 재킷의 디자인을 그대로 축소해 크리스마스 패밀리로 안성맞춤이다. 가격부담이 덜 하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칸투칸의 ‘p951 아동 구스다운 팬츠(4만9800원)’도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조훈범 원장

입안에 쉽게 생기는 염증, 베체트병 주의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된 현대인들은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고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입안이 자주 헐고 쉽게 염증이 생긴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베체트병은 전신 혈관염증 질환 중 하나로 주로 생식기와 구강 궤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그 외에 눈, 피부, 신경계, 관절, 혈관 등에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초기에는 입안에 염증이 발생하는 구강염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단순한 피로감이나 트러블 정도로 오인하여 방치하다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베체트병의 증상은 구내염과 비슷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혈액검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데다 염증의 발생 위치나 재발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힘들다.

그러나 베체트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은 피부 외에도 음부 궤양, 관절, 소화기계, 뇌신경, 하지혈관염 등 신체의 내부와 외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특히 눈에 염증증상이 발생한다면 눈 앞쪽이나 뒤쪽에 염증이 생

기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안구 출혈, 통증, 시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으니 초기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양한 면역질환과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이지스한의원에서는 AIR프로그래를 통해 면역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AIR프로그래는 환자들의 체질에 맞춘 면역탕약과 기혈순환을 돕고 장기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화음수양단, 진수고, 왕뜸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합적인 한의학 치료로 손상된 면역체계를 되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평소 입안이 자주 헐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은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정립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업무나 잦은 야근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증상을 악화시키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올바른 치료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스한의원 조훈범 원장 ▶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뮤지컬 ‘러브레터’

우리말로 듣는 “오겐키데스카” 또다른 감동

동명의 일본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무비컬’ 현재와 과거 오가는 빠른 전개...흥미진진 변정주 연출, 시공간 분할로 무대 한계 극복

“오겐키데스카~!”

뮤지컬 러브레터는 동명의 일본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무비컬’이다. 무비컬은 양날의 칼과 같다. 히트친 영화의 명성을 바닥에 깔고 있으면 흥행이 절로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영화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관객에게 “영화만 못 하네”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영화 덕에 흥보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역시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봐야 하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에 개봉했다. 국내에서 개봉된 일본영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14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후지이 이치키 역을 맡은 여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실원에서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오겐키데스카~!”하고 외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요즘도 이 장면을 패러디한 TV 광고가 방영되고 있을 정도니 명장면은 명장면인 모양이다.

영화를 압축해 무대로 고스란히 옮겨놓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면 뮤지컬 러브레터는 당신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스크린과 무대는 엄연히 다른 장소다. 무엇보다 변정주 연출가가 그리 호락호락, 설렁설렁 작품을 만들 사람이 아니다.

일단 전제가 빠르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속도가 빠르고 찾아 방심하다가는 흐름을 놓칠지 모른다.

1막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2막에 터지는 두 방의 ‘감성편치’는 관객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눈이 날려 폭풍 쌓인 밤. 구급차가 오기 힘들다는 연락을 받은 할아버지는 열이 펄펄 끓는 손녀 후지이 이치키를 업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지만 “언제 걸어서 가겠느냐. 죽은 애 아빠처럼 만들 수 없다”며 며느리가 막아선다. 이때 비장한 얼굴을 한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한다. “결 어가지 않는다. 뭘 거다.”



연말에 부부, 연인이 함께 보면 딱 좋은 뮤지컬 러브레터. 국내 개봉돼 영화 팬들의 가슴을 감동으로 적셨던 동명의 일본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는 히로코(오른쪽·김지현 분)와 히로코를 사랑하는 아키바(박호산 분).

사진제공 | PAC코리아

예의 ‘오겐키데스카’의 명장면도 대단하다. 영화와 달리 무대에서는 얼굴 클로즈업이 불가능하다. 변정주 연출은 시공간의 분할로 무대의 한계를 극복해 보인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가 몇 번이고 어두운 무대에 메아리칠 때, 객석 곳곳에서는 숨죽여 흘려주는 소리가 들려온다.

개인적으로 원작의 ‘오겐키데스카’를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 놓았을 지가 궁금했다. ‘건강하십니까(이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했다)’,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밥은 먹고 다니나요(물론 이것도 무리다)’ 등등을 생각해 보았는데, 무대에서는 결국 ‘잘 지내고 있나요’를 들을 수 있었다.

추운 겨울날, 조개탕을 땀 난로 앞에서 옛날 편지를 한 장씩 꺼내보는 듯한 뮤지컬이다. 그때 그 사람은 ‘오겐키데스카’.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제네시스·쏘렌토·카니발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국토교통부, 9개사 13개 차종 평가

자동차의 본질이 돌아가 ‘안전’을 가장 우선 시하겠다는 현대·기아차의 노력이 제네시스, 쏘렌토, 카니발의 ‘올해의 안전한 차’ 동시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시판중인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 자동차에 현대차 제네시스를, 우수 자동차에 기아차 올 뉴 쏘렌토와 올 뉴 카니발을 각각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한 차’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 차종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다.

올해는 총 9개사의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충돌안전성(정면·부분정면·측면 충돌 및 좌석시험), 보행안전성(자동차와 보행자 충돌 시험) 주행안전성(주행전복 시험 및 급제동 시의 제동거리 시험), 사고예방안전성(사고예방 안전장치 장착 시 가점 항목) 등 총 4개 분야의 평가가 진행됐고, 이들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가를 통해 순위가 매겨졌다.

제네시스는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96.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정면충돌, 측면충돌 시험

항목에서는 만점을 획득했다. 올 뉴 쏘렌토도 측면충돌에서 만점, 부분정면충돌과 보행자보호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92.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올 뉴 카니발은 정면충돌, 측면충돌 등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종합점수 91.0점으로 3위를 마크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외에 국토교통부가 평가한 올해의 안전한 차에서 1등급(총10개 차종)을 받은 차량은 한국지엠 스파크 EV·크루즈, 폭스바겐 골프, 아우디 A6, 렉서스 ES350, 벤츠 E300 등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신세계조선호텔·관광공사, 글로벌 협력 MOU

신세계조선호텔이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 글로벌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양 기관의 한국관광 글로벌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수행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이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신세계조선호텔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9.5%를 차지하고 전체 일자리 11개 중 하나를 창출하는 개발

도상국의 주요 경제산업인 관광산업 지원에 일조하게 된다.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관광 종사자 초청 문화 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광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재양성, 인적 자원 및 시설의 상호 활용 협력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